

Baewha Message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다 요한복음 12장

1. 환호한 이유

며칠전 베다니에서 나사르가 다시 살았다는 소식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쭉거렸다. 종려나무를 들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웃가지도 벗어서 길을 마련했다. 마치 승리한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행렬과 같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환호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었다.

2. 자신들의 욕망에 배신당하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해방운동을 벌였던 마카비를 기념하는 도구였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해방을 가져다 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으 뿐이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연약한 시골의 현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불과 5일 후 금요일 아침,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외양적으로 볼 때 환호하던 군중과 혀를 차던 대제사장들은 서로 반대편에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3.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광신도를 닮았다. 열심은 있는데 거만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만 편견에 갇혀있고, 기도하며 울지만 놀랍게도 연약한 자를 보고 울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 거칠기 짝이 없다. 왜 그럴까? 그건 그들이 지나치게 기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광적으로 열심이고 광적으로 용감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겸손하고, 온유하며, 배려하고, 공감하는 일에는 광적이지 않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이어진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을> 버렸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었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이다.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이다. 불완전을 알고도 예수님의 길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 참된 완전에 더 가깝다.



우리의 고백

1. 우리 교회는 교회가 제 몫을 못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의무와 실적을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생각하다가 그것을 행할 힘주시는 예수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만 볼드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보증을 얻은 변화의 삶에 힘쓰며 매진할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불순한 자들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시대가 약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 흘려지는 것이 사명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4.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접촉점을 끊임없이 고민하겠지만 그 출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5. 우리 교회는 합리적인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을 버린 어떤 신앙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과학적 사고의 발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대립하지 않음을 고백하지만 결코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대신할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할 것입니다.

6. 우리 교회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든 무늬를 문화라고 이해하며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처럼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과 같아지기를 주저하지 않겠지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무늬를 세상에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7.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된 목적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Baewha Worship

2016.03.27

부활주일 Easter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배화교회

Baewha Community Church



예배의 부름 *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송영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회중기도 김영석 목사

기도송 우리의 기도를 통해

C F/G G/C C F/G G C F/G C C7 F C/E
우리의 기도를 통해 - 오 주여 일하소서 - 주의 뜻 이루소서

⁶ F C2/E F G C Gm C7 Dm7 C/E Dm7/F F/G G C F/C C
서 - 아 - 멘 - 아 - 멘 - 멘 -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회개의 기도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습관의 폭력과 마음의 탐욕이 바른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어리석은 잘못과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며 또한 뉘우치고 돌아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집례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1-2)

평화의 인사 다함께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집례자

성찬제정사 집례자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분 급

찬 양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더욱 하나되기를 힘쓰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나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다함께

교회소식 김영석 목사

- (1) 오늘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하용원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 (2) 교회 설립을 준비하며 모이는 토요기도모임이 두 번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필운관 지하 <리듬과 신체표현실>에서 모입니다.
- (3) 예배 후에 하용원선교사님과 함께 부활주일 기념촬영을 갖겠습니다.
- (4) 오늘 오후에는 한호철, 조진영 가정 심방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송민혜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4월 10일은 우리교회의 설립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1시 주일예배를 드리고 3시에 학교관계자 및 손님들을 모시고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6) 지난 주 정례회의에서 각 부서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배부장 허경식, 선교부장 이은미, 교육부장 조진영, 관리부장 박재성, 재무부장 김용석, 사회봉사부장 송민천, 새가족부 송민혜, 함은혜, 유재연입니다.

성경봉독 다함께 *일어서서

<사도행전 4:32-37>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 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선포 하용원 선교사

부활의 증인

봉헌찬양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축 도 하용원 선교사